

부처님 오신날 하루전인 2일 아침, 비내리는 서울 시내를 아파트 하늘 아래로 부처님을 사랑하는 불자들이 모였다.  
 그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시립대종합복지관에서 단지내 60세대에 반찬봉사를 해왔던 일산 J보살, 망우리 K보살, 정릉 H보살이 주축이 돼 부처님 오신날의 큰 뜻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경로잔치를 연 것.

###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할머니 아기로 앉으세요, 고기 더 드릴까요" 새벽부터 만든 고깃국과 전, 화무침 등 푸짐한 먹을거리가 준비됐고, 이웃 아파트의 노인과 장애인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당초 이들 세 보살은 부처님 생일이나가 딱이나 함께 나눠 먹을까 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업무도 못할 정도로 커져버렸고, 경로잔치를 열기위해 수십군데 사찰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다.  
 "부처님오신날 소외받는 이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들을



의 호소에 예전 연꽃마을, 양천구 약사사, 길음복지관, 일봉선원, 미아리 정토사, 봉원사, 신내동 극락정사, 보현정사, 영화사, 성남 불광선원 등에서 쌀과 보시금을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정성에 신내동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129봉사원들까지 동참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초청, 한끼 식사에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를 담았다. 점심공양과 함께 승무, 부처춤, 탈춤 등 무료공연도 예정됐지만 밤부터 내린 비로 취소됐다. 어렵사리 준비한 공연을 할 수 없게 돼 서운했지만 상(相) 일으키지 말고, 더 하심(下心)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  
 "저희들에게 참 삼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부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믿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무릎꿇고 감사드립니다"며 이웃과 부처님의 자비에 고마움을 전하는 세 보살.  
 이들은 그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앞으로로 일생의 업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문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 조계종, '서울시립 근로자 합숙소' 위탁운영 실직 노숙자 복지 '빠른행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16일부터 '서울시립 근로자 합숙소'(소장 능란 조계종사회복지부장)를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써 조계종은 IMF사태 이후 발생한 실직노숙자 대책에 종교계에서는 가장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어 불교사회 복지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거리를 떠도는 실직자들에게 잠시나마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서울시립 근로자 합숙소'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노동부 근로복지관 뒤쪽에 연건평 5백74평(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마련되었다. 적정 수용인원은 3백20명이나 최대 5백명까지 생활할 수 있다. 취업정보실 의무실 상담실 샤워실 공중전화 등 부대시설도 갖춰져 있다.  
 특히 서울시는 '고용 전산망'을 설치하고 취업알선 상담요원을 배치,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도와줄 예정이다. 또 △출고교육 △마을 다스리기 △취업교육 △창업교육 등 을 주제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심신안정을 위한 취미클럽도 운영한다. 상담 등을 통해 실직 노숙자임이 확인된 18~65세 남성만이 입소할 수 있으며 최대 20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02)678-4992~3.  
 조계종은 지난날 22일 '보현



○20일 오전 11시 개원에 앞서 16일부터 문을 연 '서울시립 근로자 합숙소'. 조계종은 자체부담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의 집'을 개인한테 이어 '시립 실직노숙자 합숙소'를 잇달아 개설하면서 '실직자 대책에 가장 앞선 종교'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사회복지사업의 공신력 제고를 동시에 이뤄냈다. 지난 4월30일 문화관광부 중무실이 조사한 <종교계,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현황> 보고에서 불교시설이 58곳으로 천주교 57곳, 기독교 43곳, 원불교 14곳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 것도 이같은 성과를 뒷받침하는 것.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영등포근로자 합숙소 위탁운영을 전기로 타종교에 뒤진 빈민·노동복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10일 하안거 결제 전국서 2천여승님 정진**  
 무인년 하안거 결제 법회가 10일 5대총림과 전국선방에서 봉행돼 2천여 사부대중이 정진을 이끌었다.  
 해인총림 결제법회에서 방장 법진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대의 방랑자를 후두푼때는 때려도 돌아 오지 않더니/무쇠대문 거둬치니 고리가 겨우 열린다/딱하구나 쌀 한알도 쌓아두지 않고서/십자 네거리에서 사람들을 접대하라"는 계승으로 수행을 독려했다.

### 지구 환경위기-인간성 상실 '경고'



미술대전 대상에 신치현씨의 '지구'  
 현대문명의 생태계 파괴와 인간성 상실을 차갑고 무감각한 알루미늄을 통해 표현한 조각품 '지구'(신치현 홍익대 감사작품)가 제1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 또 들리는 청와대 찬송가

김대통령 부부 미사-예배... 교계 민감 반응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청와대에 신부와 목사를 각각 초청 미사와 예배를 보기로 해 교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김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 온 후 두달동안 한번도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두 분이 청와대에서 미사와 예배를 보기로 한 것은 주말 외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교인들의 불편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미사에는 세종로 성당의 안병철 주임신부가 예배에는 신촌 장천교회의 박준화 목사가 참석한다.  
 김대통령 부부의 청와대 미사-예배 소식이 알려지자 교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론과 "개인의 종교활동"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권민기사 21면)

### 남북 불교지도자 LA합동 법회 북측 7~8월께로 연기요청

6월15일 미국 LA 관음사(주지 도안)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불교지도자 통일법회'가 북한측의 내부사정 때문으로 인한 요청으로 7~8월께로 연기됐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이 때따라 지난 15일 '남북불교지도자 통일법회 기원법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차 남북실무자 현명을 북한에 급파했다. 22일경 평壤현의 공식적인 개최일정 및 상황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거리상담 나선 청소년 선도 23명**  
**실상사 불교귀농학교 현장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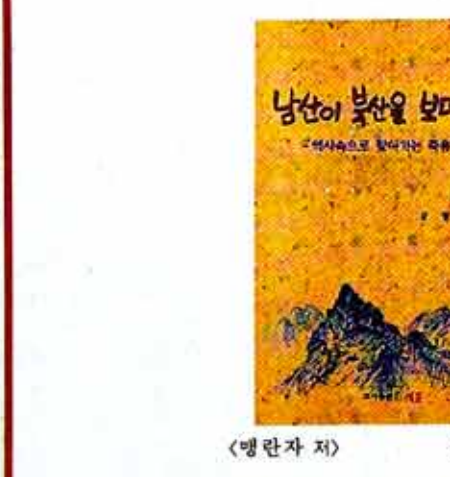
###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 수덕사서 참선철야합시다

● 철야기간: 5월 25일(월) 밤9시~26일 새벽3시  
 ● 참회대법회 회향법요식: 26일(화) 오후2시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각종단이 주관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2차 참회대법회로 한국선종의 본찰인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참선 철야정진을 합니다. 경허 만공스님의 법기가 서려있는 수덕사에서 참선 철야정진은 나라의 어려움을 조속히 이겨낼 의지를 모으며, 불자로서의 뜻깊은 수행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날 법회는 급증하는 실업자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농산물 수산물 축산을 일산물 공동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상심한 우리 산물을 싼 가격에 구입하시고, 농어민들에게 도움이되며, 실직자까지 도울수 있는 등재대비의 실천현장이 될것입니다. 수덕사 참선 철야정진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25일>  
 ■ 참선 철야정진 입재/ 오후9시  
 <26일>  
 ■ 참선정진 방선/ 오전3시  
 ■ 아침예불/ 오전3시30분  
 ■ 농축수입산물 직거래장/ 오전10시~오후5시 (연예인불자 판매지원봉사)  
 ■ 참회대법회 회향법요식/ 오후2시  
 △출 발: 5월25일(월) 오후5시 조계사앞  
 △회 비: 3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은행계좌: 조흥은행322-04-221460(선정호)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주관: 조계종 수덕사  
 후원: 국민회의 연동회·지인원불자회·한나라당불자회  
 군순단·경순단·불교방송·불교TV·현대불교신문사

### 불교문화 체험기행

6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상층석탑(보물 제233호)이 있는 도피안사, 지장도량 심원사, 6.25때 치열했던 격전지 '철원 노동당사'와 '망골' 등을 찾아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6월 '6·25 격전지를 찾아'**  
 '도피안사, 심원사, 철원 노동당사, 망골'  
 ◇출 발: 6월 21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 비: 3만원(도시락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지너 동안, 가족단위 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명란자 저> 신국판/304쪽  
 값 7,000원  
**역사속의 빛나는 인물 100인의 죽음**  
 ● 죽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세네카와 네로, 광해군과 부의 의 6인  
 ● 사라진 사람들/ 빗속으로 사라진 황제의 유배 카이사르의 9인  
 ● 죽음과의 약속/ 사약을 독촉한 소크라테스와 송시열, 깨달음과 죽음이 남달랐던 제논과 벼슬선사  
 ● 죽을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유상산과 왕수인, 소강림과 서화담  
 ● 죽음보다는 절제된 삶/ 니체와 파스칼, 토마스 카알라일과 소동파  
 ● 예술, 그 광기와 죽음/ 정신병을 앓던 모파상, 슈만, 윌리엄, 프크 에드가 알란 보우와 보올레르, 카미유 끌로델과 나체석  
 ● 화려한 명성, 처절한 최후/ 칼레오프트라와 민비, 루이인과 앙귀비, 사도세자와 소현세자  
 ●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불교의 죽음관  
 목련존자와 혜가, 공초 오상순과 양관선사, 마더 테레사

IMF가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실감하는 오늘의 보통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심덩어리로 다가옵니다.  
 "여기 그 죽음이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죽음이 뜨겁나 살인 짓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 있다"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3462-2277 팩스: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 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승복·유치원·사원복·음식점 유니폼·도복)  
 ①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연락합니다. ①  
 ▶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